

 ‘하나님의 나라’는 그리스도가 전하신 복음 선포의 핵심 메시지였다. 같은 표현으로 마태는 ‘천국’ 곧 ‘하늘나라’라는 용어를 즐겨 사용했다(마 3:2; 4:11; 5:19; 13:11).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입에 담기 두려워했던 유대인들의 습관에서 기인한 표현이다. 한편, ‘나라’를 뜻하는 헬라어 ‘바실레이아’는 ‘왕권을 지닌 자’, ‘군주’, ‘백성의 지도자’란 뜻의 ‘바실레우스’에서 파생된 말이다.

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현되는 모든 영역을 가리킨다(눅 16:16).

이 영역은 현재가 되기도 하고 미래가 되기도 한다. 예수께서는 공생애 동안 이 나라를 선포하시며 가르치셨는데, 특히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현재적 영역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셨고(마 21:31; 23:13; 눅 16:16),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재림으로 시작되는 미래의 영역으로도 소개하셨다(마 18:23-35; 22:2; 25:1-30).

즉, 하나님 나라는 시간상으로 ① 현재적이다.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(初臨)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미(already) 이 땅에 임하였다. 사탄에게 굴복하여 죄와 고통과 죽음으로 신음하던 지상 나라에,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귀신들을 축출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알리셨다(마 12:28). ② 종말적이다. 하나님 나라는 아직(not yet) 완성되지 못한 상태로서 장차 완성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. 즉, 그 나라는 사탄의 권세를 최종적으로 분쇄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재림(再臨)과 더불어 권세와 영광으로 장차 임할 것이다.

② 하나님 나라는 그 나라 백성을 뜻한다.

특히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‘구속받은 사람들’은 그 자체가 나라이다(계 5:10). 이유는, 그들이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(왕권)에 참여하는 복된 존재들이기 때문이다(계 1:6). 그 나라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로서, 거듭난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(요 3:3-5).

③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 그 자체를 뜻한다.

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(하나님을 믿고 영접하는) 사람 또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지금 받는 사람들만이 장차 임할 영원하고 복된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(막 10:15). 한편, ‘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’은 곧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서 그 나라의 시민 된 우리를 다스려 주실 것을 구하는 것이 된다(마 6:33). 하나님의 다스림은 단순히 이상적인 내용이거나 정적인 개념이 아니다. 그것은 사탄의 나라와 악의 세력을 파하는 강력한 힘이고, 이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룩한 나라를 이 땅에서 확장해 가는 역동적인 것이다(마 12:28).

따라서 ‘하나님 나라’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요, 하나님이 다스리기 위해 친히 택하시고 불러 세우신 백성이며, 하나님께서 통치의 능력을 발휘하시는 모든 영역이라 할 수 있다.

[출처] 라이프성경사전, 2006. 8. 15. 교회용어사전 : 교리 및 신앙, 2013. 9. 16. 가스펠서브